광주시-공무원노조 첫 단체교섭 시작

노조 근무조건 개선 등 31건 선정 단체교섭 요구서 전달
'시·자치구 인사교류협약' 노사협치 전국 모범사례 평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11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해 시와 노조 간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올해 3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에서 처음으로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개선 ▲업무처리 개선 등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조합원의 공통현안 31건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 중 지난 9월 4일 이용섭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이종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자치구 상생회의'에서 체결된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협약'의 경우 노사협치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구청장 인사교류, 자치구 결원충원 등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인사교류협약은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관련 대립과 갈등구조를 종식시키고 노사 간 호혜평등과 상생발전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인사교류협약에 참여해, 단체장의 이해관계나 해당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일방으로 파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협약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9월부터 안건별 소관부서의 검토와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단체교섭이 잘 진행돼 노조와 노조에 가입된 공직자들이 '노동이 존중받으며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한다"며 "시장, 공직자, 노조는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하도록 돕고자 존재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대책회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0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경찰, 소방, 보거환경연구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여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숙인들의 꿈과 희망을 품은 공예작품 전시회

노숙인 보호시설인 광주희망원 생활자들의 '꿈과 희망을 품은 공예작품 전시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린다.〈사진〉 이번 전시에서는 희망원 생활 노숙인들이 자활프로그램에서 만든 한지, 도자기, 칠보, 자수, 냅킨, 가죽작품 등 300여 점이 선보인다. 광주희망원은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시설로, 보호를 넘어 사회 일원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1회 10여 명의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10여 명이 토탈공예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작품으로 만들어 완성도와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자살예방 우수사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광주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 우수사례 부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취약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명지구대 운영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생명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12년 정부로부터 정신보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자살 위기자 지역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유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번개탄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2년 25.4명에서 2015년 21.4명으로 감소해 4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성과를 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오늘 오후 2시 지진대피훈련 민간시설 등 9300여명 참여

광주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동시 훈련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지진안전주간(9월 10~14일)을 맞아 공공청사와 직장민방위대뿐만 아니라 시민의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 6곳도 훈련 대상으로 선정, 9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에 앞서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해 행동요령을 숙지한 가운데 훈련에 참여토록 해 효과를 높이고, 지진 발생 시 현재 위치에서 옥외 대피장소를 찾는 방법을 교육해 실제 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10일에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진안전 캠페인도 펼쳤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즈벡 노동부 한국사무소 광산구에 개소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이하 우즈벡노동부 사무소)는 1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층 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개소식에는 쉐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장관, 비탈리 편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아사무브 우즈베키스탄 이주인력 청장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우즈벡노동부 사무소 광주 개소에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인 김윤세 (재)한국능력개발원 대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식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만남의 장을 시작으로 외빈 축사, 현판식 순으로 치러졌다.

이용섭 시장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거주중인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정착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품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등 축산물을 집중검사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수거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유과, 약과 등 과자류와 참기름, 콩기름 등 식용유지류 부패지수, 품질규격, 식중독균 검사 ▲전·튀김음식, 건어포류, 어묵 등 조리식품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검사 ▲도매,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210종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을 비롯해 결핵, 브루셀라 등의 가축 전염병 감염을 정밀검사하는 한편 한우 둔갑 판매 여부,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세균과 항생제 등 잔류물질 169종 검사 등 검사물량을 평상시의 두 배로 늘려 부적합한 축산물은 즉시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축장 휴무일인 22일과 23일에도 2곳의 도축장을 모두 개장해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 소·돼지 도축물량 증가에 따라 검사관 인원과 검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사이버학습센터 인문학 등 230개 온라인 강좌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윤)은 언제, 어디서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민사이버학습센터(elearning.gwangju.go.kr)는 인문학, 자격증, 외국어, 정보화, 취·창업, 생활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총 230여개 온라인 강좌를 간단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제작한 '광주형 온라인 강좌'는 지역 명사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로서 지난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10개팀 참여…신명난 버스킹 페스티벌

빛가람전력엑스포 부대행사
10월 31~11월 2일 DJ센터

빛가람전력기술엑스포(BIXPO)의 부대행사인 버스킹 페스티벌(이하 빅스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한국전력,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컨벤션뷰로에서 주관하는 버스킹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마당에서 개최된다. 전국의 버스커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장상, 한국전력공사 사장상 제정으로 행사의 격을 높였으며 버스킹페스티벌과 함께 하루종일 공연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브런치 뮤직박스가 동시에 개최되어 문화 빅스포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서류 심사를 거친 총 10개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10개의 공연팀 중 시민투표 및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총 3개 팀이 수상을 하게 된다. 총 상금은 600만원이다. 버스킹 공연 외 시민 레크레이션, 전통국악, 재즈, 팝, 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총망라한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질 본 행사는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개최되며,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빛가람전력기술엑스포는 한국전력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전시회로 약 6만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 행사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8400만원

✓ 53평, 사무실/주거 겸용
✓ 20층중 7층, 코너, 전망좋음,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시세 – 1억 5000만원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6834-7400

비금도 옆에 있는 단독섬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010-3605-5000